

퍼플렉시티 “구글, 제조사 압박”... 삼성 AI 전략에 ‘견제설’

퀄리티 협력 논의에 견제 정황 일 3천만 쿼리, AI 급성장 배경 구글, 기본 탑재로 영향력 확대 업계 “삼성 협력 맨 균열 가능”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이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방해했다고 공개 폭로하면서, 스마트폰 AI 생태계를 둘러싼 빅테크 간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삼성전자가 퍼플렉시티와의 협력을 통해 AI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 구글이 자사 영향력 유지를 위해 견제에 나섰다 분석이다.

10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테크 콘퍼런스에서 “구글은 분명히 우리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제조사들이 구글 눈치를 보느라 우리와의 미팅조차 꺼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AI 어시스턴트를 기본 탑재하려는 과정에서 구글의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스리니바스 CEO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해 방법, 계약 무산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갤럭시 S26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 퍼플렉시티의 AI 어시스턴트를 기본 탑재하는 방안을



챗GPT로 생성한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이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방해했다고 공개 폭로하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논의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몇 주간 국내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근접한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합의안 공식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퍼플렉시티는 AI 검색 시장에서 급

성장세 중이다. 2022년 설립 후 약 3년 만에 하루 3000만 건 이상의 검색 쿼리를 처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 5월 한달간 7억8000만건의 쿼리를 기록했다.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구글 의존도

를 줄이고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 갤럭시 AI 기능 대부분은 구글 제미니, 서클 투 서치 등 구글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 S25부터는 구글과 공동 개발한 ‘원UI 7’ 플랫폼을 통해 40여개 모델에 제미니를 탑재 중이다.

구글은 삼성에 제미니 사전 탑재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스토어 정책, 광고 수익 분배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통해 파트너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실제로 2021년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이를 확정했다.

드미트리 세벨렌코 퍼플렉시티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지난 4월 말 구글 반독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반독점 소송 등 외부 압박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토로라 기기에 앱을 못 넣었을 것”이라며 구글의 배타적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퍼플렉시티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구글이 사실상 독점해 온 모바일 AI 생태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퍼플렉시티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다른 제조사들도 구글 이외의 선택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전자

“세탁기, 사랑을 잇다” 뉴욕서 이색 결혼식

LG전자가 미국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특별한 결혼 서약식을 열었다. 세탁기를 통해 사랑과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색 마케팅으로, 프리미엄 세탁기 브랜드 이미지를 더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최근 뉴욕 명소 하이라인 파크에서 ‘러브 투 런더리’ 행사를 열고,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연인 10쌍을 초청해 결혼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라인파크는 매년 약 800만 명이 찾는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러브 투 런더리는 LG전자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글로벌 캠페인으로, 워시타워, 워시콤보 등 세탁 가전을 통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LG전자는 스테인드글라스 무니로 꾸민 워시타워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해 공간을 꾸몄다. 현장에는 미국 방송인 패티 스탠저가 사회를 맡았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에밀리 시몬의 공연도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수천 명의 시민이 하이라인파크를 오가며 연인들의 서약을 지켜봤다.

참가자들은 사전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LG전자는 이들에게 각각 워시타워 한 대를 선물했다. 현장을 찾은 일반 방문객을 위한 사연 응모 이벤트도 열렸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도 워시타워가 증정됐다. /이혜민 기자

삼성, ‘AI 가전 3대장’ 판매 30% 경총

에어컨 하루 1만대 ‘역대 최다’ 비스포크 냉장고 40%↑ 기록 신제품 콤보, 첫 월 1만대 돌파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가전 3대장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올해 상반기 판매 호조를 보이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을 포함한 가정용 에어컨은 약 30% 증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가전 3대장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올해 상반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1만대 넘게 팔리며,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스포크 4도어 키친핏 냉장고는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고, 일체형 세탁 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도 누적 판매량이 1년 사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 제품은 지난달 한 달동안 1만대 넘게 팔리며 출시 이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 1만대를 넘겼다.

삼성전자는 올해 새로 선보인 2025년형 AI 가전을 앞세워 시장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용자의 생활 습관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작동하는 기능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AI 에어컨’은 사용자 생활양식뿐 아

니라 실내의 온도와 습도, 날씨 정보까지 분석해 냉방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쾌적’ 기능을 갖췄다. 공간의 크기까지 고려해 바람 세기와 방향을 조절하고, 환기 시점이 되면 음성으로 알려준다. 전기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AI 절약모드’도 탑재했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반도체 소자로 내부 온도를 조절해 식품을 더 신선하게 보관하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을 갖췄다.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의 무게, 오염도, 재질까지 AI가 인식해 맞춤형 세탁·건조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국내 최대인 25kg 세탁, 18kg 건조 용량을 갖췄으며, 세탁부터 건조까지 79분만에 끝내는 쾌속 코스도 지원한다. /이혜민 기자

포스코퓨처엠 “배터리소재 자급체제 완성” 한화, 美 정부서 오스탈 인수 ‘청신호’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

“포스코그룹 차원의 니켈 공급망을 구축한 것에 이어 포스코퓨처엠은 전구체 공장 준공을 통해 ‘원료-반제품-양극재’에 이르는 자급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정책 변동 속에서 광양 전구체 공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업기전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10일 전남 광양시 울촌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 준공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전구체 시장은 중국이 장악한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은 독자적인 생산라인 구축으로 안정적인 양산 체제와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포스코퓨처엠 광양 전구체 공장은 기존 광양 양극재 공장 부지 내 총 2만 2400㎡(약 6800평) 크기로 조성됐고 연간 4만 5000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전기차 50만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CFIUS, 최대 100% 지분 보유 승인

한화그룹이 해양방산기업 호주 오스탈(Austal)사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지난 6일 받았다.

1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는 올해 3월 장외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고 동시에 19.9%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앨라배마주 모

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업을 경영하고 있다.

한화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핵심 기관)에 오스탈 지분 19.9% 인수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고, CFIUS는 “해결되지 않은 국가안보 우려가 없다”며 최대 100%까지 지분 확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이승용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8척 건조계약 2028년까지 순차 인도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선박 계약에 성공하며 올해 순조로운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소재 선사로부터 1만 59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66m, 너비 51m, 높이 30.3m 규모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수주 계약금액은 총 2조 4000억원 규모다.

이 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된다.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총 44척의 컨테이너선 중 약 60%인 26척이 LNG 이중연료 추진 사양에 해당한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해상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연료 추진 사양의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다의 탈탄소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